자율형 공사립고 인재 유치전 치열

광주·전남 우수 신입생 확보 총력전
대입 맞춤형 교육 등 중학교 방문 홍보

광주·전남 지역 자율형 공·사립고들이 우수학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교사들이 중학교를 방문해 홍보전을 펼치는가 하면 해외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수 공약, 입학 예비학교 운영, 대학입시 맞춤형 교육 등 눈길을 끄는 조건을 내걸고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나선 지역 자율형 공·사립고는 각각 6곳과 3곳으로, 이들 학교들이 뜨거운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이달부터 모집요강을 발표, 학교별로 오는 11, 12월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기존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고와 사립고인 송원고 외에 올해 새로 지정된 광주일고·광주고(공립), 숭덕·보문고(사립) 등 4곳이 신입생 선발에 가세,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고와 순천고가 올해 자율형 공립고로 새로 지정돼 기존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함께 인재영입을 위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1, 2년새 자율형 공·사립고로 지정된 이들 학교가 우수인재 영입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향후 대학입시에서 명문고교 도약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싹이 보이는' 우수자원을 확보해야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홍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자율형 공·사립고 교직원들이 수업시간을 외에 틈나는 대로 일선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홍보리플렛 등을 나눠주는 게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들 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해,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바람에 일부 학생의 경우 고교 홍보물이 쌓일 정도다.

▲자율형 공립고=공모를 거쳐 교장을 뽑을 수 있고, 전체 교사도 초빙할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고, 선택 교과 편성권은 학교자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와 산학겸임교사를 교사 정원의 3분의 1까지 임용할 수 있다.

이들 학교들은 눈길끄는 교육·장학·복지혜택을 내세워 신입생과 학부모를 공략하고 있다. 상일여고는 우수학생 아이비리그 견학은 물론 향후 대학입시를 위해 대학에 학교홍보물까지 보내고 있다.

광주고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생 120명을 보내겠다는 공약을 내건데 이어 동문회에서 학교 발전기금 1억여원을 모금해 장학·복지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입생들을 위해 고교 예비교실을 확충·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일고도 입학부터 대학진학 때까지 차별화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문회 등으로부터 5년 동안 7억5000여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학생복지에 투자하겠다며 신입생을 공략하고 있다.

숭덕고는 학생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고, 송원고와 보문고도 차별화한 교육방침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목포고는 내년 1학년 학생 30명을 기숙사에 선발·입사시키는 것은 물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지난 3월 연합 학력평가 대비 1등급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공·사립고의 성패가 우수인재 영입에 달린데다 이들 학교들이 새로 늘면서 우수학생 유치전이 한층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학습스타일과 진학대학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주민증 방문 서비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12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북구는 2007년부터 학교방문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응급환자 어떡하라고

몰지각 시민 광주 등산로 구급함 슬쩍

최근 광주지역 주요 산에 비치된 구급함이 잇따라 털리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금당산 팔각정 인근 등산로에 비치된 구급함(높이 1m·가로 50㎝·세로 40㎝)에 든 소독약·일회용 밴드·탈지면 등 5만원 상당의 구급약품이 도난당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에는 동구 무등산 토끼등에 설치된 구급함 내 파스·생리식염수·일회용 거즈 등 4만원 상당의 구급약품이 사라지는 등 한 달 평균 4~5개의 구급함이 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산행 도중 부상을 당한 등산객들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함에는 소독약·밴드·핀셋·탈지면·생리식염수 등 구급약품과 기구가 들어 있다. 이는 광주지역 소방서들이 조난사고를 당한 등산객들의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다. 현재 구급함이 설치돼 있는 곳은 무등산(9곳)·제석산(4곳)·금당산(3곳)·어등산(2곳) 등 4개 산 18곳이다.

광주지역 각 소방서 측은 설치 비용이 개당 100만원 정도 드는데, 자주 도난을 당하면서 한 달 평균 10만원 상당의 기구와 약품을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관계자는 "구급함 사용시에는 소방서에 전화해 자물통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구급약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용 후 구급함 개폐장치를 닫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지법 아동 성범죄자 처벌 관대
최근 5년간 인신구속형 40% 그쳐

광주지방법원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자유형(징역, 금고 등) 선고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법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사건 18건을 사법처리했다.

이는 올해 전국 법원이 처리한 아동성범죄 사건(200)건의 9% 수준으로, 수원지법(28건), 대전지법(20건)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또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여 동안 총 243건의 아동성범죄자 사건을 처리해 수원지법(318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이 기간 아동성범죄사범 99명(40.7%)에 대해서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와 재산형 선고는 각각 115건(47.3%), 11건(4.5%)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다.

이은재 의원은 "광주지법 산하 시·군의 아동성범죄는 매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라도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나 찾는다

1000만원 이하 공탁금은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받을 수 있으며, 관할과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할 수 있던 금전변제공탁 신청도 모든 공탁소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공탁사건 27만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1만건이 1000만원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새 지침으로 인해 상당수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락 쌀값 보상하라" 농기계 시위

보성군 농민회

보성군 농민회 소속 농민 300여명은 12일 보성군 보성읍 농협 미곡처리장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이날 콤바인 100대, 트랙터 100대 등 농기계 300여대를 농협 미곡처리장 앞길에 세워놓고 '농민 살피지 말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1차 보성군 농민대회'를 연 뒤, 대북 쌀 지원 재개와 쌀값 폭락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쌀값을 폭락시키려는 태도를 보면서 솟구치는 분노를 삭일 수 없다"며 "농협은 정부나 중앙회의 눈치만 함께 대 정부, 대 중앙회와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운동 등을 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민회는 이날 집회를 끝내고 보성군에 요구서를 전달한 뒤 시가행진을 벌였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담양 전차 사격장서
육군 중사 목 매 자살

지난 11일 밤 10시45분께 담양군 대전면 육군기계화학교 11전차부대 황룡사격장 화장실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임모(25) 중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대원이 발견, 군 당국에 신고했다. 임 중사는 육군기계화학교에 입교해 전차포 사격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군 헌병대는 동료 등 부대 관계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원룸 돌며 금품 훔친
20대 절도범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원룸촌을 돌며 금품을 훔친 강모(27·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 원룸에 사는 김모(여·34)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원룸 3층 계단에서 김씨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몰래 뜯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과기록 누락 서류 제출
여수시의원 선고 유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전과기록이 누락된 증명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56)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회보서에 자신의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방뇨 범칙금 고지서 찢어 벌금100만원

쌍나팔

○…노상방뇨를 하던 60대 남성이 경범죄 범칙금 5만원을 내기 싫어 고지서를 찢었다가 공용서류무효죄로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돼 울상.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0·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골목에서 소변을 보다가 주민(61)에 의해 신고돼 경찰에 동행된 뒤, 경범죄 범칙금 5만원이 적힌 납부고지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김씨는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생리현상인데 급하면 용변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횡설수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